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김현철 연구위원 · 황여정 부연구위원

Vol.12 2013. 08.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 개요 ▶▶▶

### | 조사의 개요 |

▶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종류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운영 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 수준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학생과 그들이 재학 중인 학교임.

- 표본 설계는 전국의 학생 모집단 5,548,299명(초등학교 1,175,619명, 중학교 1,898,699명, 일반계 고등학교 1,486,941명, 특성화 고등학교 447,070명, 2012년 기준)을 대상으로, 지역과 학교를 층화변수로 고려한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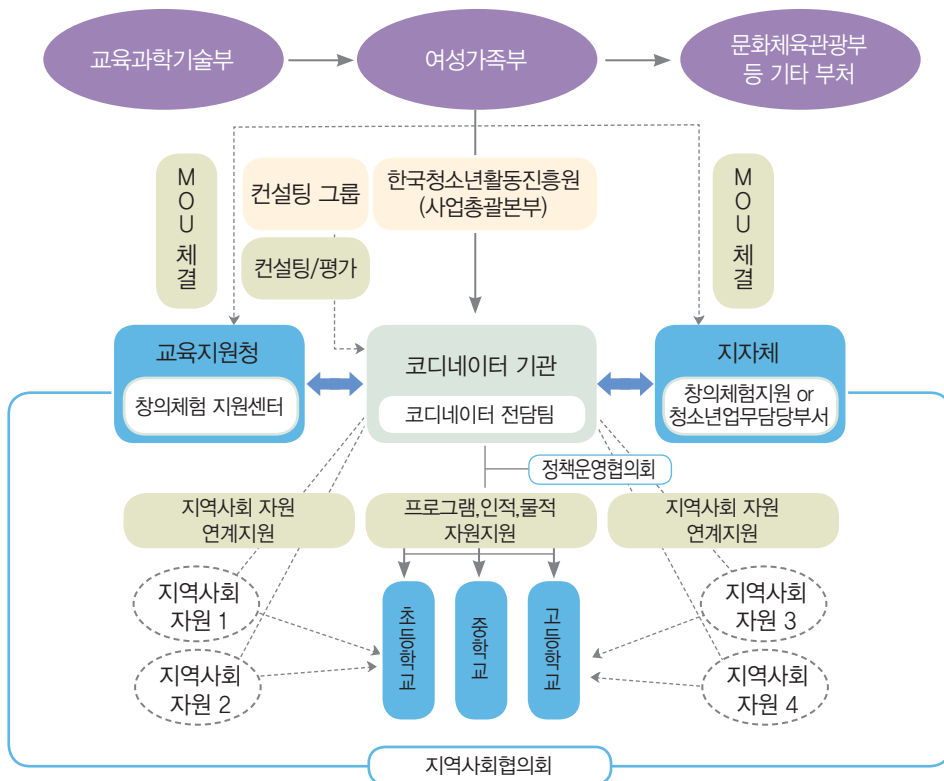
- 최종적으로 총 300개교(초등학교 102개교, 중학교 84개교, 일반계고 66개교, 특성화고 48개교) 학생 8,53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본학교 300개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②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시범사업모형의 적용 가능성과 성과 및 한계 등을 밝히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의 시행 기관(청소년기관 및 학교)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시범사업에는 총 44개 코디네이터 기관과 100개의 시범학교가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에는 37개 기관 및 82개교가 참여하였음.

## | 시범사업의 개요 |

- ▶ ① 코디네이터 기관이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시범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 ②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시범사업의 총괄본부가 됨.
- ③ 중앙위원과 지방위원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컨설팅단을 두되, 지방위원은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전문인력으로 구성
- ④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를 위해 지자체의 창의체험지원 부서 및 교육(지원)청의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 와의 연계 추진
- ⑤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교과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기타 부처의 역할 조정
- ⑥ 코디네이터 기관에 코디네이터 전담팀 구성·운영
- ⑦ 코디네이터 기관과 시범학교 간에 ‘정책운영협의회(가칭)’ 구성·운영
- ⑧ 코디네이터 기관과 다수의 지역사회기관 간 협의회 구성·운영



[그림 1]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2차년도 시범사업 운영모형

# 1.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실태



## ● 전국 수준 설문조사 결과

① 일선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의 인력(또는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41.8%(그런 편이다 35.2%+매우 그렇다 6.6%)로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9.3%+그렇지 않다 26.2%) 보다 높게 나타남. 그렇지만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활동이 아직까지 그다지 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됨.

[표 1]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위한 외부의 도움 수혜 여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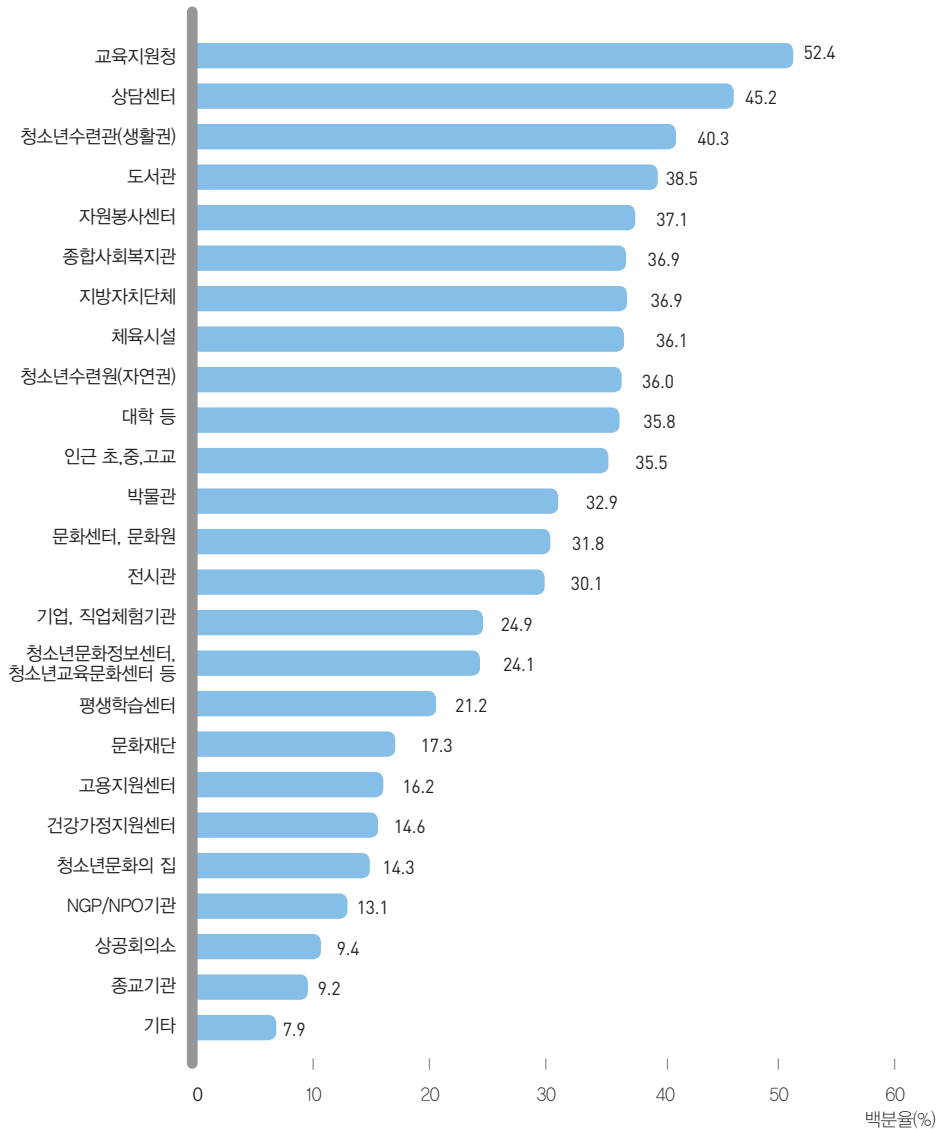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chi^2$
초등학교	6 (6.5)	28 (30.1)	20 (21.5)	30 (32.3)	9 (9.7)	93 (100.0)	12.18 (df=12)
중학교	13 (12.7)	21 (20.6)	19 (18.6)	42 (41.2)	7 (6.9)	102 (100.0)	
일반계고	6 (7.3)	23 (28.0)	24 (29.3)	25 (30.5)	4 (4.9)	82 (100.0)	
특성화고	3 (12.5)	7 (29.2)	5 (20.8)	9 (37.5)	0 (0.0)	24 (100.0)	
전체	28 (9.3)	79 (26.2)	68 (22.6)	106 (35.2)	20 (6.6)	301 (100.0)	

\*p<.05, \*\*p<.01

※가중치 부여로 인해 전체 사례수가 표집학교수(n=300)를 초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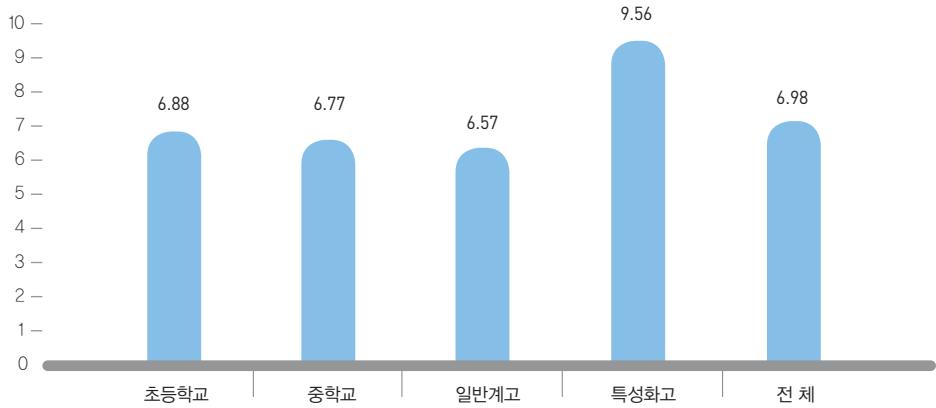
②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실제로 학교들이 어떠한 기관과 연계·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호 교류하는 기관을 조사해 본 결과, 학교들이 가장 많이 교류하는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파악되었음(52.4%). 그런데 교육지원청은 사실상 일선 학교와 어떤 형태로든 교류할 수밖에 없는 교육행정기관이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일선 학교가 교육지원청과 맺고 있는 네트워크는 학교가 주도하여 발굴한 지역 사회자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 점을 감안하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로 가장 연계를 많이 하는 기관은 상담센터(45.2%)이며, 그 다음으로 생활권에 소재한 청소년수련관(40.3%)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 밖에 도서관(38.5%), 자원봉사센터(37.1%) 등이 연계·협력을 많이 하는 기관으로 파악되었음.



[그림 2]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연계·협력하는 지역사회 자원의 종류

③ 학교 1개교 당 연계·협력관계를 구축한 지역사회 자원수는 평균 6.98개로 파악되었음. 학교급별로는 특성화고에서 9.56개로 가장 많은 외부 자원과 연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타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교 6.88개, 중학교 6.77개, 일반계고 6.57개, 일반계고 6.57개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그림 3] 학교급별 연계·협력 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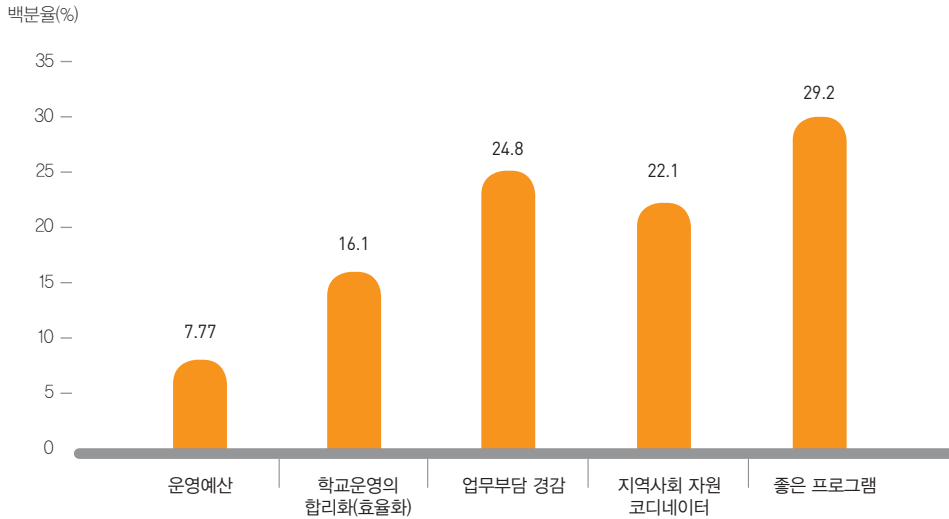
④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기관 또는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하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로 파악되었음. 구체적으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4.6%, '필요한 편이다'는 응답이 51.9%로 나타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6.5%를 차지함.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코디네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어, 창의적 체험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는 학교급일수록 코디네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코디네이터 인력 또는 기관의 필요성 (일반 학교)

학교급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사례수 (명)	$\chi^2$
초등학교	0 (0.0)	3 (3.3)	7 (7.7)	44 (48.4)	37 (40.7)	91 (100.0)	23.62** d.f.=12
중학교	0 (0.0)	2 (2.0)	11 (11.0)	48 (48.0)	39 (39.0)	100 (100.0)	
일반계고	2 (2.5)	1 (1.3)	11 (13.8)	46 (57.5)	20 (25.0)	80 (100.0)	
특성화고	0 (0.0)	3 (12.5)	0 (0.0)	15 (62.5)	6 (25.0)	24 (100.0)	
전체	2 (0.7)	9 (3.1)	29 (9.8)	153 (51.9)	102 (34.6)	295 (100.0)	

\*\* p<.01

⑤ 전국 초·중·고교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좋은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29.2%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 그 다음으로는 '업무 부담 경감'이 24.8%로 뒤를 이었고, '지역사회 자원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네이터 기관'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2.1%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그 밖에 '학교 운영의 합리화(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6.1%, '운영 예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7.7%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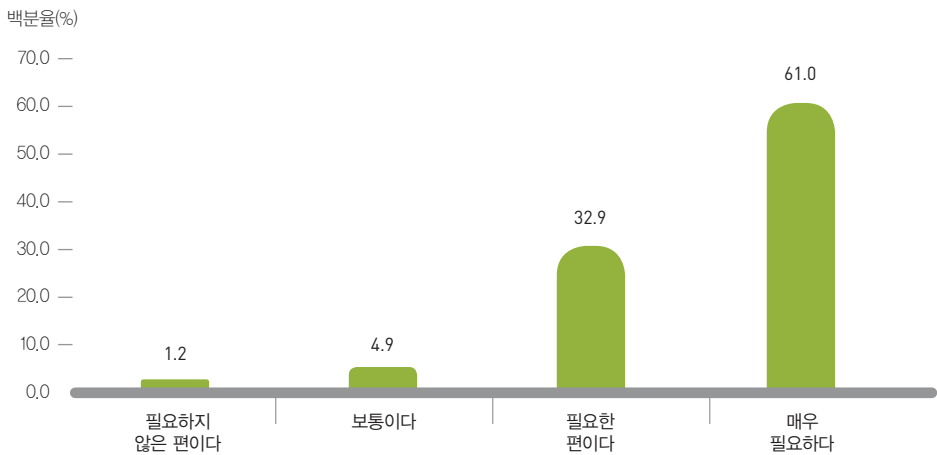


[그림 4]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공적인 운영 조건 (일반학교 교사 대상)

● 시범사업 참여기관 조사 결과

(1) 시범학교의 운영 실태

① 일반학교 교사들에게 물었던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시범사업 담당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제시해본 결과,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학교의 담당 교사들에게서 보다 분명하게 표출되었음. 조사에 응한 시범학교 담당교사 가운데 61.0%가 코디네이터 인력 또는 기관이 ‘매우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필요하다’는 응답도 32.9%에 달해, 전체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93.9%에 이룸.



[그림 5] 코디네이터 인력 또는 기관의 필요성 (시범학교)

② 일반학교와 시범학교를 비교한 결과,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4.6%, ‘필요한 편이다’는 응답이 51.9%로 나타난 데 비해, 시범사업 참여 학교의 경우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1.0%, ‘필요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32.9%로 도출되어 시범사업 담당자에게서 강한 긍정 의견이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자들이 코디네이터 인력 또는 기관의 필요성을 더 깊게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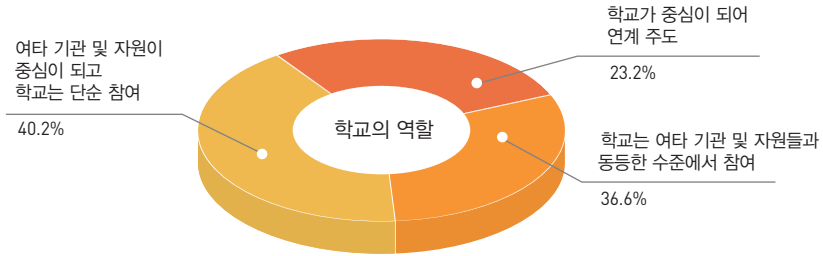
[표 3] 코디네이터 인력 또는 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 학교 및 시범 학교 담당자 응답 비교

(단위 : 명,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사례수 (명)
일반학교	2 (0.7)	9 (3.1)	29 (9.8)	153 (51.9)	102 (34.6)	295 (100.0)
시범학교	-	1 (1.2)	4 (4.9)	27 (32.9)	50 (61.0)	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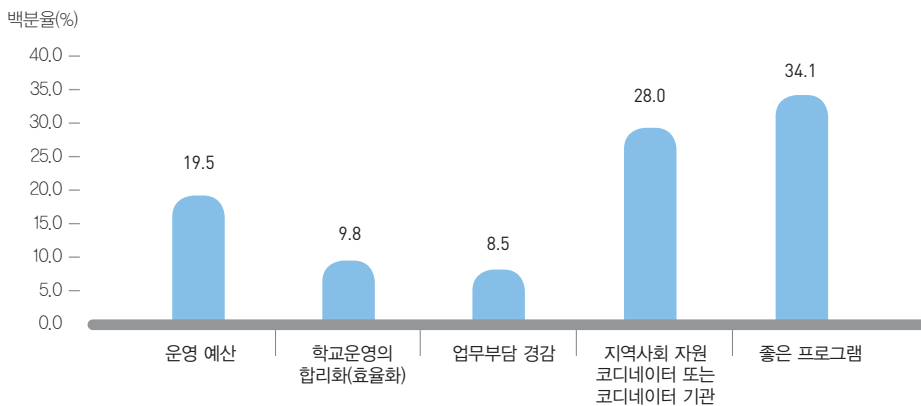


③ [그림 6]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할 때 학교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지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를 보여줌. 조사 결과, 시범학교 담당자들은 학교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조력자 역할을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됨. '여타 기관 및 자원이 중심이 되고 학교는 단순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나타냈으며, '학교는 여타 기관 및 자원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36.6%로 그 뒤를 이음. '학교가 중심이 되어 연계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은 23.2%에 그침.



[그림 6]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시 학교의 역할 (시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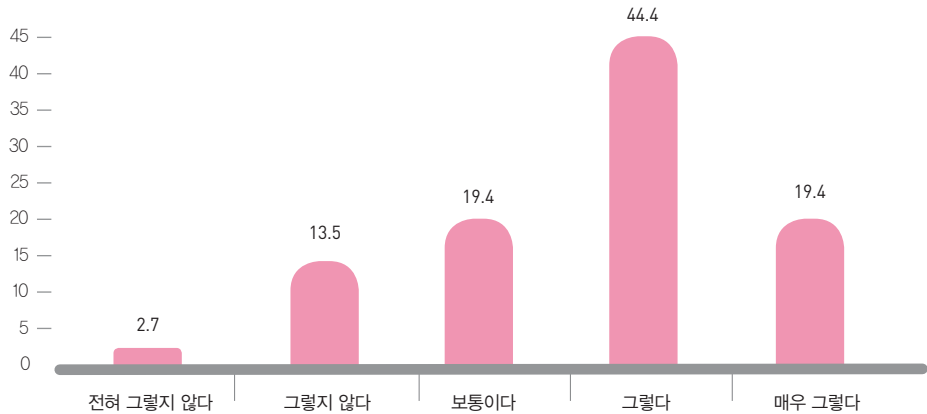
④ 시범사업 참여 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는 [그림 7]과 같음. 일반 학교 담당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좋은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34.1%)을 차지함.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자원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네이터 기관'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28.0%를 차지하였으며, '운영 예산'이 19.5%로 뒤를 이음.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일반 학교 담당 교사들의 설문에서는 '업무부담 경감'이 2위를 차지하는 것과 다소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며, 실제 사업을 운영해 본 담당자들이 코디네이터 필요성에 대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7]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공적인 운영 조건 (시범사업 참여학교 교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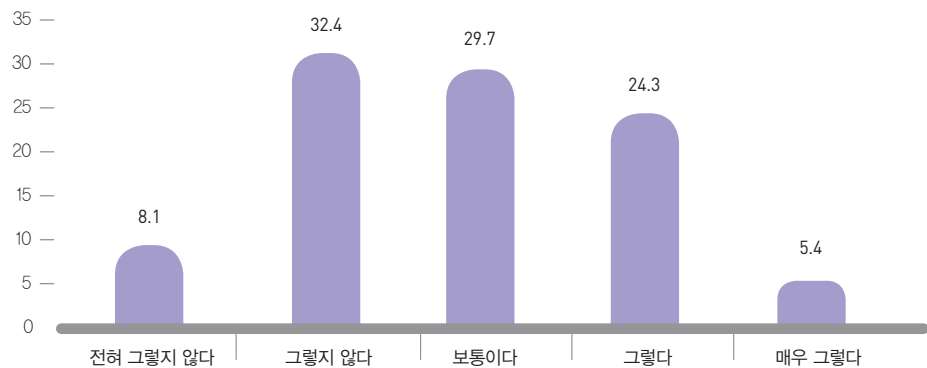
## (2) 시범사업 참여 기관 운영 실태

①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대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코디네이팅하는 업무가 실무자에게는 다른 사업보다 특별히 더 힘든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63.8%(그렇다 44.4%+매우 그렇다 19.4%), 부정적인 응답 의견이 16.2%(그렇지 않다 13.5%+전혀 그렇지 않다 2.7%)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코디네이팅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8] 지역사회연계 시범사업에 대한 부담감 (n=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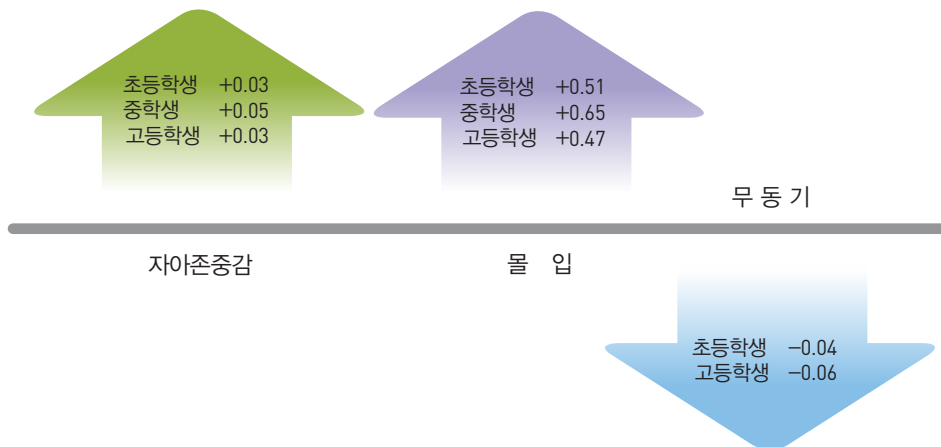
②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29.7%(그렇다 24.3%+매우 그렇다 5.4%), 부정적인 응답이 40.5%(그렇지 않다 32.4%+전혀 그렇지 않다 8.1%)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이 같은 결과는 코디네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기관에서 체험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 또는 지원할 때, 청소년 주도적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9] 청소년 주도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수준 (n=37)

### (3)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통제변인을 투입하여 학교급별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음.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얻은 긍정적 경험이 그들의 자아존중감, 몰입수준, 무동기(amotivation)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얻은 긍정적 경험은 자아존중감이나 몰입수준은 제고하고, 무동기(amotivation) 수준은 낮추는 등 청소년 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체험활동의 효과는 학생의 개인특성과 가정배경 등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게 지속되어, 초·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무동기 수준을 낮추는 효과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내실 있게 운영되는 양질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주<sup>1</sup>: 제시된 수치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 분석 결과 산출된 비표준화 회귀계수임.

\* 주<sup>2</sup>: 투입된 통제변인은 성별, 가족구조,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 학력, 학업 성적 등임.

\* 주<sup>3</sup>: 중학생의 경우, 무동기에 대한 회귀계수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출처 : 김현철 · 황여정(201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Vol.37\_2012.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림 10] 체험활동을 통한 긍정적 경험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114 Taebongro, Seocho-Gu, Seoul 137-715 Korea  
Tel. 02-2188-8800 Fax. 02-2188-8869 [www.nypi.re.kr](http://www.nypi.re.kr)

